

경제

금호타이어 신규자금 3000억 '수혈'

채권단, 1400억 규모 채권 만기 연장도

워크아웃 순조 ... 경영 정상화 탄력 기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추가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해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지난 주 금호타이어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안건을 마련해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

신업은행은 금호타이어에 신규로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1400억

원 규모의 국내 채권 만기를 2014년 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의 해외 채권 만기도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할 해외 채권 규모는 채권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미 지원키로 합의하고 집행하지 않은 2000억원의 자금도 이번에 수혈하기로 했다.

해외 채권 만기 연장을 제외하고 금호타이어에 지원되는 규모는 자금

3000억원과 채권 만기 연장 1400억원 등 총 44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이 같은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만 사들이고 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 대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대우건설 자본 5.61%를 팔아 받을 예정이던 3200억원의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단이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주에 마련된 금호타이어에 대한 자금 지원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이번 주 중에 확정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가 조만간 신규 자금을 지원받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5월 말 금호타이어에 대해 출자 전환과 차등 감자, 신규 자금 지원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워크아웃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3분기 영업 실적도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상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경영에 복귀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 작업에 탄력을 불게 됐다. 박 회장은 이날 신문로 신관 27층 집무실에 출근해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하나로클럽 사업조정신청

2일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인사리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기업들이 광주시청 경제정책과를 찾아 광산구 수완동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들어설 '농협 하나로 클럽'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2500평에 달하는 하나로클럽이 문을 열게 되면 광산구내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신상, 수완, 하남 일대 중소기업들은 폐업 위기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1일자 1면 참조>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 투자자 주식으로 이동?

지난달 거래량 4억8000만주·대금 3조6000억 큰폭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시대에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은행을 빠져나와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주식거래량은 4억8061만주로, 전월(4억2181만주)보다 13.94%(5880만주) 증가했다.

거래대금 역시 3조6586억원으로

전월(2조8355억원)보다 29.03%(8231억원) 늘었다.

순매수량도 729만주로 231만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액에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이 2.66%(9월 2.60%), 거래대금은 2.07%(1.96%)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 상위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삼양식품, 대한전선, 하이닉스, 와이비로드, 청호전자통신 순이었으며, 코스닥 시장은 CT&T, 엔케이바이오, 하이벨, 대국, 글로벌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국 내년 성장률 4.5% 전망

G20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 순위 7위보다 3계단 올라서는 것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G20 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시사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4.5%로 중국(9.6%), 인도(8.4%), 인도네시아(6.2%)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4.5%)와

공동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G20 선진국, 한국이 G20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G20 내 선진국 중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사실상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이어서는 러시아(4.3%), 브라질, 아르헨티나(4.0%)가 내년 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반면 유럽연합(1.7%), 일본(1.5%), 이탈리아(1.0%)는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G20 회원국의 내년 평균 성장률은 4.4%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피치, 光銀 신용등급

'BBB'로 한단계 낮춰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광주은행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2일 피치는 광주은행의 장기 외채 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단계 낮추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대출채권(underlying loan) 부실과 유동성 약화가 등급 조정 이유다. 특히 외화유동성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치는 "광주은행이 신용도 측면에서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해 취약해졌다"며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지난 2009년 2.55%에서 올 상반기 2.87%까지 향상되긴 했지만 향후 수년간 신용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수박람회 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시의회, 정부 등에 건의

여수시의회는 2일 오는 210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건설교통부와 여수박람회조직위 등 관계 당국에 보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박람회 관련 각종 공사가 한창이지만 대부분 공사가 수도권 기업과 대기업 등이 도맡아 지역업체는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다”며 “상생과 협력차원에

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박람회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역업체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를 확대, 지역 중소기업에 생산한 물품 구매 등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의심 300곳 조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중인 정부가 법규에 어긋난 거래 행위를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 300곳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불공정 행위 의심 기업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실시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6월부터 납품을 맡긴 위탁기업과 일감을 받은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벌여 왔다. 그동안 대금 거래 및 공급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인 중기청은 최근 불공정 소지가 있는 위탁기업 300곳을 추려냈다.

대금이나 이자를 제때 주지 않았거

나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내린 행위,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다.

중기청은 연말까지 진행될 현장 조사에서 불공정 혐의가 확인된 기업을 찾아내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정하지 않은 기업은 부처와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해 올해에는 불공정 혐의가 적발되는 기업이 2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현장 조사 대상 위탁기업 200여개 중 대기업 5곳을 포함한 140개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올 가을배추 생산량 135만~141만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이 135만~141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평년보다 0.4~4.2% 많은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540ha로 지난해(1만4462ha)보다 6.4% 감소했

으나 평년(1만3669ha)과는 비슷했다. 단위면적당(10a) 생산량은 9993~1만428kg으로 평년 작황(9914kg) 이상이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과, 적설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국내산 수요와 균형을 맞추거나 5만t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financial data including 코스피지수 (1,918.04), 코스닥지수 (523.93), 금리 (3.41%), and 원·달러 환율 (1,113.60원).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500평 건물 4,400평 (매가 200억),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억) 등 부동산 정보.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3.3㎡당 매매가 약 2,850㎡ 등 부동산 정보.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3002㎡(908평), 대매가 15억원대,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등 부동산 정보.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아파트], [주택],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숙박시설], [토지(전,답,임야,대지)]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가격표.